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균형실업률 추정과 시사점

-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 증가 대응이 시급하다!

목 차

■ 균형실업률 추정과 시사점

-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 증가 대응이 시급하다

Executive Summary	i
1.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도달한 실업률	1
2. 고용보험으로 본 국내 실업의 실태	2
3. 균형실업률 추정과 실업률 구조분석	5
4. 시사점	9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동북아연구실 : 박 용 정 연 구 원 (2072-6204, yongjung@hri.co.kr)

Executive Summary

□ 균형실업률 추정과 시사점

-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 증가 대응이 시급하다!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도달한 실업률

최근 국내 경기 부진세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등 국내 고용 불안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16년 들어 실업률은 1/4분기 4.3%, 2/4분기 3.8%, 3/4분기 3.6%를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4분기 3.8%, 2/4분기 3.8%, 3/4분기 3.6%보다 높거나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연간 실업률은 2016년 3.7%, 2017년 3.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5년 3.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업률을 구조적(장기 만성적 실업)·마찰적(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실업과 수요부족(불황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총수요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에 의한 실업으로 분해하여 그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고용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고용보험으로 본 국내 실업의 실태

고용보험 상 피보험자 자격 상실자(이하, 자격 상실자)를 자격 상실 원인별로 살펴보면 경기 요인(수요부족)에 의한 실업 실태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 상실자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2010년 511.2만 명이었던 자격 상실자 규모가 2015년에는 607.6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도 9월까지 총 487.5만 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약 23.6만 명 증가하였다. 한편, 자격 상실자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5년에는 4.1%까지 상승했으며, 2016년에도 9월 누적 기준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가 증가했다. 폐업·도산, 경영 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계약만료·공사종료와 같은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는 2016년 9월 누적 기준 약 166.2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3.0만 명 증가했다. 이는 사업장이전·근로조건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나 정년을 포함한 전체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 증가 규모의 약 84.7%에 이르는 수준이다. 셋째,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가 증가했다. 2016년 9월 누적 기준으로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 증가 규모는 제조업이 약 1만 명, 서비스업이 약 2.2만 명으로, 이는 각각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의 약 63.9%, 약 99.4%에 달하는 수준이다.

■ 균형실업률 추정과 실업률 구조분석

① 균형실업률 추정을 통해 본 경기 요인(수요부족)에 의한 실업

본고에서는 균형실업률을 임금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임금안정실업률(NAWRU; Non-accelerating wage rate of unemployment)로 가정하여 실제실업률과 균형실업률의 괴리를 추정,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률 추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다소 미미한 수준이지만 실제실업률이 균형실업률을 지속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나, 경기 요인(수요부족)이 국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황기에는 실제실업률이 균형실업률보다 높은 상태가 3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2015년은 물론 2016년과 2017년에도 균형실업률이 실제실업률을 0.1%p씩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② 실업률 구조분석

경기 요인에 의한 수요부족 실업률은 실업률과 결원을 간의 관계(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UV 곡선(UV Curve; Unemployment-Job Vacancy Curve) 즉,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 추정을 통한 가용 일자리와 실업 간 미스매치 분석을 통해서도 추정이 가능하다. 분석 결과, 최근의 실업률 상승은 경기 요인에 의한 수요부족 실업률의 확대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요부족 실업률은 2012년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14년에는 1.5%, 2015~2016년에는 1.6%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4%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간별 실업률 구조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구조적·마찰적 실업률은 하락하는데 반해 수요부족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3~2006년 기간 평균 3.0% 수준이었던 구조적·마찰적 실업률은 2011년 이후 평균 2.1%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에 수요부족 실업률은 2003~2006년 평균 0.7% 수준에서 2015~2016년에는 1.6%로 0.9%p나 상승했다.

■ 시사점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산업구조조정 진전, 국내 사회 불안 가중 등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고용 대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첫째, 수요부족 즉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 증가 억제에 위한 적극적인 고용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대상 산업 및 연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실업 대책, 공공부문의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확충,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확충 노력 병행 등이 시급하다. 둘째, 유망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경기 요인에 의한 수요부족 실업의 발생을 최대한 상쇄해야 한다. 유망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나 R&D 지원 강화 등과 같은 투자 촉진 지원책 마련, 계속 또는 신규 고용 지원 확대 등과 같은 패키지 형태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노동 수요 진작을 위한 관련 정책 보완은 물론 고용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을 통해 구조적·마찰적 실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의 고용 관련 인센티브제도의 보완, 지역 단위의 공공고용지원기관이나 경제 단체는 물론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르는 국내 고용시장의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고용 시장 내에서는 인문+과학 등 융합형 인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인재 육성·활용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교육과 일자리 관련 정책들도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는 일관된 고용정책을 추진, 고용시장의 안정화는 물론 거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유도가 필요하다.

1.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도달한 실업률

- 최근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등 국내 고용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실업률

- 2016년 들어 실업률은 1/4분기 4.3%, 2/4분기 3.8%, 3/4분기 3.6%을 기록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비교해보면 1/4분기는 2009년 1/4분기 3.8%보다 높은 수준이며, 2~3/4분기는 동일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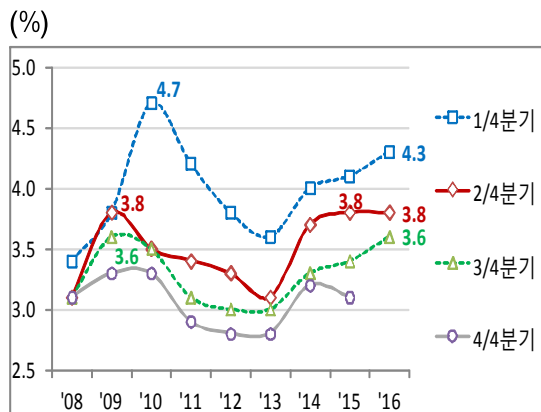
- 2017년에도 실업률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

- 국내 경제가 2%대의 중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실업률도 2015년 3.6%에서 2016년 3.7%, 2017년 3.9%로 상승세 지속 예상

- 이하, 본고에서는 실업률을 구조적·마찰적 실업과 수요 부족(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으로 분해하여 그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고용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¹⁾

- 특히, 2013년까지 하향 안정화되던 국내 실업률이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

< 분기별 실업률 비교 >



자료 : 통계청.

< 국내 경제 및 실업률 전망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제성장률	2.6	2.5	2.6
민간소비	2.2	1.9	2.0
건설투자	3.9	7.3	3.9
설비투자	5.3	-2.5	2.0
수출증가율	-8.0	-5.2	3.8
실업률	3.6	3.7	3.9
소비자물가	0.7	0.9	1.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1) 실업은 크게 구조적·마찰적, 수요부족 실업으로 구성되는데 구조적 실업은 장기간 만성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실업,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수요부족 실업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걸친 총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인 실업을 의미함.

2. 고용보험으로 본 국내 실업의 실태

○ (전체) 고용보험 상 피보험자 자격 상실자(이하, 자격 상실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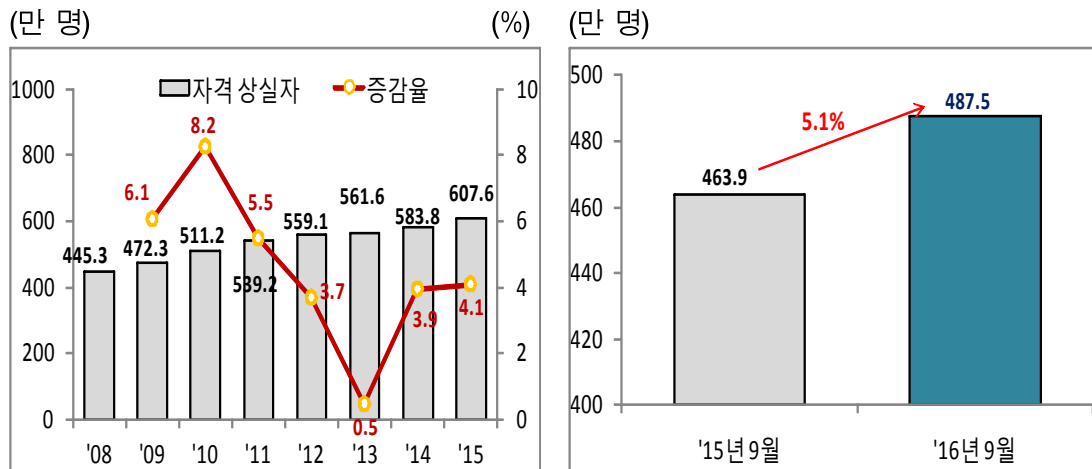
- 자격 상실자 규모 확대

· 2010년에 511.2만 명이었던 자격 상실자 규모가 2015년에는 607.6만 명으로 확대, 2016년에도 9월까지 총 487.5만 명으로 전년동기비 약 23.6만 명 증가

- 빨라지고 있는 자격 상실자 증가세

· 2013년 0.5%였던 자격 상실자 증가율이 2015년에는 4.1%까지 상승, 2016년 9월 누적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5.1%로 자격 상실자 증가세 가속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추이 >



자료 : 고용보험.

자료 : 고용보험, 현대경제연구원.

주 : '15년 9월과 '16년 9월은 누적 기준.

○ (원인별)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도 증가하고 있음

- 증가세로 전환된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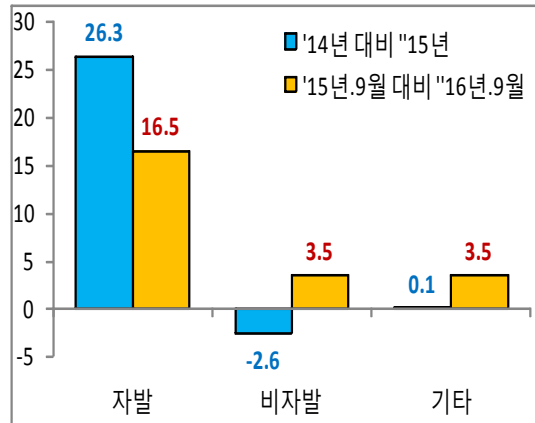
·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는 2015년에는 약 2.6만 명 감소했으나, 2016년 9월까지 누적으로는 2015년 동기간에 비해 약 3.5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피보험자격 상실 원인 구분 >

자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비자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이전·근로조건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폐업·도산 · 경영 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 정년 · 계약만료·공사종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비적용·이중고용 · 분류 불능

자료 : 고용보험.

< 원인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증감 >
(만 명)



자료 : 고용보험, 현대경제연구원.

주 : '15년 9월과 '16년 9월은 누적 기준.

- 경기 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 증가

-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 가운데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는 2015년 9월까지 누적 약 163.2만 명에서 2016년 9월 누적 약 166.2만 명으로 약 3.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6년 9월 누적 기준 전체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 증가 규모의 약 84.7%에 이르는 수준임

< 원인별 자격 상실자 증감 비교 >

(명)

구분	'15년 9월(A)	'16년 9월(B)	B-A
자발적	2,862,952	3,028,339	165,387
비자발적	1,735,748	1,771,192	35,444
경기 요인	1,632,208	1,662,244	30,036
기타	40,668	75,928	35,260

자료 : 고용보험, 현대경제연구원.

주 1) '15년 9월과 '16년 9월은 누적 기준.

2) 경기 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는 폐업·도산, 경영 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계약만료·공사종료에 해당하는 자임.

○ (산업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기 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 증가

-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가 증가
 -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는 2015년 9월(누적치 기준) 대비 2016년 9월(누적치 기준)에 약 3.5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약 61.7%(약 2.2만 명)가 서비스업이고, 약 42.4%(약 1.5만 명)가 제조업임
 -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자발적 자격 상실자에 비해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가 약 4.7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의 대부분이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
 - 제조업의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 약 1.5만 명 중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 비중은 약 63.9%(약 1만 명)에 이룸
 - 서비스업은 동 약 2.2만 명 중 동 약 99.4%에 달함

< 산업별 원인별 자격 상실자 증감 비교 >

(‘15년 9월 대비 ‘16년 9월, 명)

구분	자발적	비자발적	기타
계	165,387	35,444	35,260
농림어업	-5	-1,141	20
광업	28	-308	-19
제조업	3,176	15,018	502
서비스업	162,188	21,875	34,757

<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 중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 규모 비교 > (명)

구분	‘15년 9월(A)	‘16년 9월(B)	B-A
계	1,632,208	1,662,244	30,036
농림어업	15,376	14,345	-1,031
광업	1,113	856	-257
제조업	239,039	248,629	9,590
서비스업	1,367,680	1,398,414	21,734

자료 : 고용보험, 현대경제연구원.

주 1) ‘15년 9월과 ‘16년 9월은 누적 기준.

2) 경기 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는 폐업·도산, 경영 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계약만료·공사종료에 해당하는 자임.

3. 균형실업률 추정과 실업률 구조분석

1) 균형실업률 추정

○ (선행연구) 국내 균형실업률에 관한 실증 연구는 주로 HP-Filter, Kalman Filter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

- 본고에서의 균형실업률(Equilibrium rate of unemployment)은 임금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임금 안정적인 실업률(NAWRU; Non-accelerating wage rate of unemployment)을 의미
 - 균형실업률은 완전고용상태의 실업률인 자연실업률과는 다른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실업률을 의미함
 - 물가요인을 배제한 노동시장 변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실업률 개념의 분석보다 시장여건 판단에 유용함

< 균형실업률 추정 선행연구 >

구분	분석방법	균형실업 척도	균형실업률 추정 결과
유경준(2000, 2001)	Hodrick-Prescott Filter	NAWRU	'99년 : 3.4% '00년 : 4.1% '01년 : 4.4%
신관호(1999, 2001)	Kalman Filter	NAIRU	'74~'99년 : 3.8% '98~'99년 : 5.5%
신석하(2004)	Kalman Filter	NAIRU	'02년 : 3.5% '03년 : 3.1%
박재민·전재식(2007)	Kalman Filter	NAIRU	'98~'99년 : 5.4% '00~'06년 : 3.7%

자료 : 유경준, 「균형실업률 추정과 정책 시사점」, 보도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00; 유경준, 구조적 실업률의 추정 및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 신관호, 「한국의 실업률 변화와 자연실업률」, 『경제위기와 실업구조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1999; 신관호, 「한국의 자연실업률 추정과 외환위기 이후의 실업률 증가에 대한 이해」, 『한국경제의 분석』, 제7권, 한국금융연구원, 2001; 신석하, 「한국의 자연실업률 추정」, 『KDI 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2004; 박재민·전재식, 「상태공간모형을 이용한 균형실업률 추정과 고용정책에 대한 시사점」,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0권(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주 : NAWRU는 임금안정적실업률(Non-Accelerating Wage Rate of Unemployment), NAIRU는 물가안정실업률(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을 의미함.

- (분석모형) 유경준(2000)의 NAWRU(Non-accelerating wage rate of unemployment) 모형을 참고하여 실업률, 임금상승률, 기대임금상승률로 변수를 구성하여 분석²⁾

- U 는 실업률, w 와 w^e 는 각각 임금상승률, 기대임금상승률의 로그 값을 의미하는데 기대임금상승률은 Hodrick-Prescott filtering을 사용하여 도출

$$NAWRU = U - [\Delta U / (\Delta^2 w - \Delta (\Delta w)^e)] (\Delta w - (\Delta w)^e)$$

< 분석에 활용된 변수 >

시계열 범위	설명	출처
2003~2017 연간자료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KOSIS
	임금상승률 : 1인당 피용자 보수(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 상승률 (%)	ECOS, KOSIS 활용, 자체 계산
	기대임금상승률 : 임금상승률의 Hodrick-Prescott filtering	

- (분석결과) 2014년 이후 실제실업률이 균형실업률을 지속 상회하는 등 경기 요인(수요부족)이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

- 2015년부터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이 확대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실제실업률이 균형실업률을 상회하면서 국내 고용 불안정 현상이 심화되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다시 실제실업률이 균형실업률을 하회하며 노동시장 안정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
- 하지만, 2015년부터는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이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기 불황기에는 실제실업률이 균형실업률 보다 높은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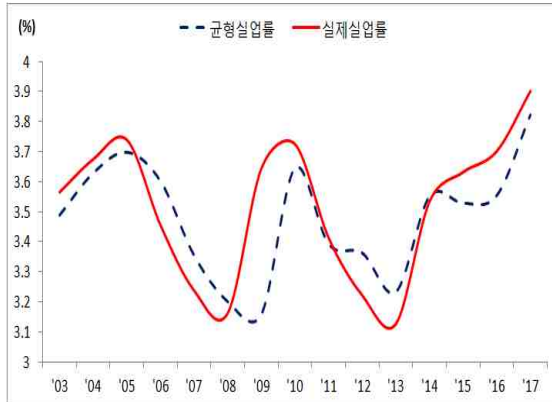
- 2016년 이후에도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률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

- 2016년과 2017년 균형실업률은 각각 3.6%, 3.8%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실제실업률 전망치인 3.7%와 3.9%를 각각 0.1%p씩 하회³⁾

2) 유경준, 「균형실업률 추정과 정책 시사점」, 보도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00.

3) 1인당 피용자 보수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연평균증가율을, 균형실업률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실제실업률 전망치를 활용하여 도출함.

< 실제실업률과 균형실업률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기간별 실제 및 균형실업률 격차 >

구분	실제 실업률 (A,%)	균형 실업률 (B,%)	격차 (A-B,%p)
'03~'06년	3.6	3.6	0.0
'07~'10년	3.4	3.3	0.1
'11~'14년	3.3	3.4	-0.1
'15~'17년	3.7	3.6	0.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연평균 실업률(%).
2) '16,'17년은 각각 3.7%, 3.9% 전망치 적용.

2) 실업률 구조분석

○ (선행연구) 실업률과 결원을 간 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 추정을 통해 가용 일자리와 실업 간 미스매치(mismatch) 분석을 실시

- 베버리지 곡선(UV : Beveridge Curve)은 실업률과 결원을 간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상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활용

· 원점 바깥으로 곡선의 이동은 노동시장이 비효율적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나타냄

○ (분석모형) 전용석·강민정(2004)과 일본노동연구기구(2002)⁴⁾의 추정 모형을 이용해 추정된 베버리지 곡선을 토대로 구조적·마찰적 실업률과 수요부족 실업률을 도출

-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활용하였고 결원율은 공식으로 남아 있는 일자리 비율을 변수로 이용⁵⁾

· 결원율은 공공고용안전망(Work-Net)을 통해 관리되는 구인구직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되는데, 산업이나 사업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족한 일자리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짐

4) 전용석·강민정, 「UV곡선을 이용한 실업률의 구조 분석」, 『2004년 2/4분기 고용동향분석』, 중앙고용정보원, 2004; 日本労働研究機構, 2002, 「ミスマッチと経済變動の雇傭への影響」, 『労働経済白書』, 平成14年版.

5) 실업률과 결원율 자료는 MA(Moving Average)를 활용하여 계절 조정된 값을 적용.

- 수요부족 실업률은 실업률에서 구조적·마찰적 실업률을 뺀 값임
 - 실업률과 결원율이 안정적으로 우하향 관계를 보이는 구간을 설정하여 계산에 필요한 계수 값을 추정한 후 구조적·마찰적 실업률을 도출⁶⁾

< 분석에 활용된 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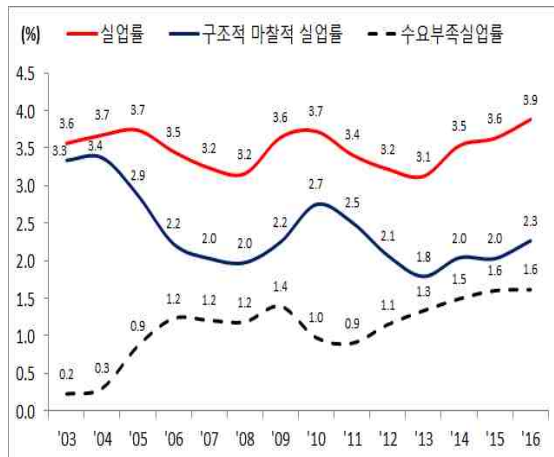
시계열 범위	설명	출처
2003~2016 분기자료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KOSIS
	결원율 : (구인인원-취업건수)/(구인인원-취업건수+구직자수)	e-나라 지표

○ (분석 결과) 최근 실업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경기 요인에 의한 수요부족 실업률의 확대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추세적 실업률 구조변화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의 수요부족 실업률이 3년간 지속되고 있음
 - 2010년 2.7%까지 상승했던 구조적·마찰적 실업률은 2013년에는 1.8%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2016년에는 2.3%까지 상승
 - 한편, 수요부족 실업률은 2012년부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014년에는 1.5%, 2015~2016년에는 1.6%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4%보다 높은 수준임
- 기간별 실업률 구조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구조적·마찰적 실업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수요부족 실업률은 상승
 - 2003~2006년 기간 평균 3.0% 수준이었던 구조적·마찰적 실업률은 2011년 이후 평균 2.1% 수준으로 하락
 - 반면에 수요부족 실업률은 2003~2006년 평균 0.7% 수준에서 2015~2016년에는 1.6%로 0.9%p 상승

6) $\ln(u) = \alpha + \beta \ln(v)$ 을 추정. 단, 여기에서 u 는 실업률, v 는 결원율임. 2012년 1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의 GLS(General Least Squares) 추정 결과 회귀계수는 -0.31, 상수항은 0.78로 도출되었는데 모두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 하는 것으로 확인. 특히 자기상관관계를 검증하는 LM test에서도 1% 유의수준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과로 도출됨으로써 시계열의 안정성 측면도 확인됨. 한편, 구조적·마찰적 실업률을 u^{**} 이라고 할 때, u^{**} 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출할 수 있음. $\ln(u^{*}) = (\ln(u) - \beta \ln(v)) / (1 - \beta)$. $U = (EE / (100 - u)) \times u^{*}$. 단, EE 는 구직자수, U 는 균형실업자수를 말함. $u^{**} = U / (E + U) \times 100$. 단, E 는 취업자수를 말함.

< 실업률, 구조적·마찰적 실업률, 수요부족 실업률 추이 >



자료 : KOSIS,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16년은 3/4분기까지 평균.

< 기간별 실업률, 구조적·마찰적, 수요부족 실업률 >

구분	실업률 (%)	구조적·마찰적 실업률 (%)	수요부족 실업률 (%)
'03~'06년	3.6	3.0	0.7
'07~'10년	3.4	2.3	1.2
'11~'14년	3.3	2.1	1.2
'15~'16년	3.8	2.1	1.6

자료 : KOSIS,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연평균 실업률(%).
2) '16년은 3/4분기까지 평균.

4. 시사점

○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산업구조조정 진전, 국내 사회 불안 가중 등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고용 대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

- 첫째, 수요부족 즉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 증가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고용 대책 추진이 필요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산업은 물론 이들 산업과의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산업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실업 대책이 필요함
- 특히, 현재 우려되고 있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고용시장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도 커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확충 방안도 사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의 균형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간 괴리가 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임시직이나 일용직 중심의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보다 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산업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확충 노력도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유망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경기 요인에 의한 수요부족 실업의 발생을 상쇄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에서는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활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유망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나 R&D 지원 강화 등과 같은 투자 촉진 지원책 마련, 계속 또는 신규 고용 지원 확대 등과 같은 패키지 형태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셋째, 노동 수요 진작을 위한 관련 정책 보완은 물론 고용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을 통해 구조적·마찰적 실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함
 - 취약 계층의 고용(확대)에 대해 법인세를 경감해 주거나,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고용 관련 인센티브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또, 고용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 축소나 해소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실업 상태가 장기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공공고용지원기관이나 지자체, 경제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넷째,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르는 국내 고용시장의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고용 시장 내에서는 인문+과학 등 융합형 인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인재 육성·활용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교육과 일자리 관련 정책들도 이에 대응해야 함

- 다섯째, 중장기적으로는 일관된 고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용시장의 안정화는 물론 거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해야 함

이부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박용정 연 구 원 (2072-6204, yongjung@hri.co.kr)

<참고 1> 구인인원, 구직자수, 취업건수, 실업률, 결원율 추이

(단위 : 명, %)

구분	구인인원	구직자수	취업건수	실업률	결원율
2003Q1	135,311	242,977	48,275	3.8	0.264
2003Q2	119,165	215,413	48,910	3.4	0.246
2003Q3	113,269	244,947	45,804	3.5	0.216
2003Q4	120,423	229,489	37,461	3.6	0.266
2004Q1	152,598	322,047	49,037	4.0	0.243
2004Q2	149,990	255,466	65,942	3.5	0.248
2004Q3	162,448	257,415	53,964	3.6	0.296
2004Q4	143,081	278,015	54,814	3.6	0.241
2005Q1	176,609	400,383	64,336	4.2	0.219
2005Q2	180,285	327,175	84,965	3.7	0.226
2005Q3	179,114	336,139	83,518	3.6	0.221
2005Q4	169,294	313,539	84,351	3.5	0.213
2006Q1	193,586	403,805	91,622	3.9	0.202
2006Q2	196,130	360,548	99,371	3.4	0.212
2006Q3	185,682	400,286	100,416	3.3	0.176
2006Q4	194,398	442,815	105,964	3.2	0.166
2007Q1	219,580	515,651	127,633	3.6	0.151
2007Q2	256,601	482,937	133,493	3.2	0.203
2007Q3	253,968	475,863	111,978	3.1	0.230
2007Q4	278,299	492,622	128,152	3.0	0.234
2008Q1	285,975	546,683	139,992	3.4	0.211
2008Q2	285,954	484,844	144,240	3.1	0.226
2008Q3	289,133	502,807	130,463	3.1	0.240
2008Q4	251,279	559,223	129,427	3.1	0.179
2009Q1	243,344	735,829	152,139	3.8	0.110
2009Q2	288,652	689,292	174,378	3.8	0.142
2009Q3	344,750	680,698	183,870	3.6	0.191
2009Q4	348,265	626,922	159,148	3.3	0.232

자료 : e-나라 지표 「고용센터 구인, 구직 및 취업현황」, KOSIS 및 자체 계산.

주 : 원계열 자료.

<참고 2> 구인인원, 구직자수, 취업건수, 실업률, 결원율 추이

(단위 : 명, %)

구분	구인인원	구직자수	취업건수	실업률	결원율
2010Q1	428,796	722,503	165,944	4.7	0.267
2010Q2	464,128	697,873	192,592	3.5	0.280
2010Q3	446,279	681,200	173,999	3.5	0.286
2010Q4	431,784	653,430	169,393	3.3	0.287
2011Q1	470,135	669,006	160,778	4.2	0.316
2011Q2	470,300	635,430	176,115	3.4	0.316
2011Q3	418,259	638,474	161,566	3.1	0.287
2011Q4	383,484	616,922	158,035	2.9	0.268
2012Q1	450,221	687,668	177,733	3.8	0.284
2012Q2	459,896	621,107	188,071	3.3	0.304
2012Q3	431,718	595,303	185,407	3.0	0.293
2012Q4	436,684	613,437	180,540	2.8	0.295
2013Q1	465,172	766,962	213,407	3.6	0.247
2013Q2	453,124	690,676	222,998	3.1	0.250
2013Q3	425,826	711,603	209,368	3.0	0.233
2013Q4	418,737	711,422	207,589	2.8	0.229
2014Q1	432,711	806,046	230,589	4.0	0.200
2014Q2	433,666	708,533	227,840	3.7	0.225
2014Q3	413,097	714,823	210,885	3.3	0.221
2014Q4	416,237	704,464	200,599	3.2	0.234
2015Q1	429,596	827,906	239,986	4.1	0.186
2015Q2	411,147	725,040	236,390	3.8	0.194
2015Q3	397,363	728,888	214,733	3.4	0.200
2015Q4	431,602	714,687	206,115	3.1	0.240
2016Q1	439,670	827,519	228,664	4.3	0.203
2016Q2	420,479	678,243	216,886	3.8	0.231
2016Q3	425,163	654,962	192,830	3.6	0.262

자료 : e-나라 지표 「고용센터 구인, 구직 및 취업현황」, KOSIS 및 자체 계산.

주 : 원계열 자료.